

# ‘뚝심’의 장흥 무산김, 세계가 인정했다

### 어민들, 친환경 수산물 가능성 확신...부단한 노력 412ha ASC 국제인증 획득 ‘여의도 면적의 1.4배’ 2737ha 친환경 인증 이어 세계무대 진출 발판 마련

장흥 무산김이 품질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

장흥군은 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무산김이 국제 기구 ‘ASC(양식관리협회)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SC 인증은 해양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국제 인증 제도이다. 2010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비영리 국제기구로 설립한 양식관리 협회(ASC)에서 만든 인증이다.

장흥군 무산김은 여의도 1.4배 면적의 ASC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 기관은 12개월 주기의 연간 사후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장흥군은 전국 김 생산량의 4~5%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과감하게 친환경 무산김 양식을 선포했다.

대다수의 김 양식 어업인들은 관행적으로 유무기산 등을 사용했지만, 장흥군과 지역 어민들은 친환경 수산물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유무기산을 쓰지 않으면 3배 이상의 노동력이 필

요하지만, 뚝심있는 노력으로 무산김 브랜드를 전국에 알린 것이다.

장흥 친환경 무산김 생산자와 장흥 무산김(주)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ASC 인증을 받기 위해 2년 전부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ASC 국제인증을 획득하면서 국내를 벗어나 세계무대로 진출의 발판도 마련했다.

ASC 인증은 물김 생산에서 가공 및 해양 환경까지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인증이다.

장흥군처럼 412ha 큰 면적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한 규모다.

전국 최대의 친환경 인증(2737ha)과 더불어 ASC 국제인증(412ha)까지 획득하면서 어민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양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맛있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장흥군의 목표다.

김성 장흥군수는 “친환경 정책을 확대해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자연을 물려줄 것”이라며 “앞으로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을 통해 친환경 어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 지역 어민들이 추운 날씨에 친환경 무산김을 수확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 나주시, 2월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 출퇴근·심야 시간대 승차난 ‘숨통’...업계 재정지원도 확대키로

나주시가 2월부터 법인·개인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나주지역 전체 택시 269대가 요일 구분 없이 상시 운행함에 따라 심야시간 승차난 완화 등 택시 이용 승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50여년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제도로 나주시의 경우 6부제를 적용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관련 훈령

개정과 함께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다.

나주시는 지난 11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택시에 지원하는 배광고비용을 1대당 기존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키로 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도 1대당 매월 1만

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1만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시설 노후화로 승객들의 불편이 컸던 영산포 택시 승강장 기사 휴게실, 나주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도 시 예산 6000만원을 투입해 배가림, 휴게시설을 재설치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택시부제 해제로 퇴근,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승객 중심의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택시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강진 대표 음식 밀키트로 만난다

### 회춘탕·표고버섯·국밥 등 하반기 온라인 공개

강진군이 강진을 대표하는 지역 음식을 밀키트(간편조리세트) 상품으로 개발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관광이 트렌드로 정착함에 따라 강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강진군 홍보와 지역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강진군은 최근 한정식, 회춘탕, 탕 요리 등의 맛을 개선하고 단품메뉴 개발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특화음식 개발 컨설팅 용역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회춘탕, 표고버섯 탕수, 국밥, 곱창전골 등 밀키트 대상 메뉴를 정하고 상품화 작업, 밀키트 디자인 적용, 품목제조 등록, 자가 품질검사, 포장용기 및 포장지 제작 등 밀키트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밀키트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 라이브,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번 밀키트 개발은 강진과 지역 음식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이 개발중인 회춘탕 등 밀키트.

강진원 강진군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비대면 디지털 생활 방식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로 이제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군정의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군민 소득과 연결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담양군, 자매도시와 고향사랑기부금 ‘상부상조’

### 대구 달성군 등 전국 6곳에 기탁

이병노 담양군수가 자매결연도시인 대구 달성군과 서울 성북구, 서울 용산구, 대전 서구, 충남 계룡시, 충북 제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사진>  
이번 기부는 자매결연도시의 상호 발전과 더불어 출향인, 자매도시 주민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매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창규 제천시장과 서철모 대전 서구

정장은 담양군에 기부금을 기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기부가 자매도시와 담양군의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매도시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www.ilovegohyang.go.kr/>)나 전국 농축협에서 가능하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함평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1위 ‘함평천지한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함평군 기부자들이 답례품으로 함평천지한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난해 답례품으로 친환경쌀, 잡곡, 함평천지한우, 함평사랑상품권, 자동차장 예매권 등 40개 품목 93종을 선정했다.

제도 시행 후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한 답례품은 함평천지한우가 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함평사랑상품권(20%)과 벌꿀세트(18%)가 뒤를 이었다.

기부 지역은 서울·경기 50%, 광주·전남 40%, 기타 10% 순으로 집계 됐다.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 기부자가 9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내 고향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에 동참해 주신 기부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관절염 예방·관리는 기공체조로 하세요”

### 화순군, 체조교실 대상자 모집

화순군이 관절염 예방·관리에 관심이 있는 기공체조교실 신규 대상자를 선착순 15명 모집한다.

기공체조는 기혈순환과 근력강화에 도움을 주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관절염 환자들에게 권장된다.

상반기(2월 8일~4월 19일)와 하반기(9월 6일~

11월 3일)로 진행되며 매주 2회(수, 금)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진행된다. 기공체조를 통한 심신 이완법과 호흡 훈련 및 명상 수업으로 구성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건강지식을 습해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조선시대 민화 5000여점 역사적 가치는?

### 한국민화뮤지엄 유물 조사 완료

강진군 한국민화뮤지엄(관장 오석환·오슬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박물관 중요 유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물 조사에는 한국민화학회 소속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유물 조사는 한국민화뮤지엄 소장 조선시대 민화 5000여점 중 중요 유물을 한 점씩 확인하며 역사적 가치를 토론했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계기로 중요 유물들에 대한 연구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선시대·근대의 산수화, 도석화, 설화도, 문자도 등을 확인해 다양한 역사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 점이 성과”라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체계적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민화학회는 이러한 조사 성과를 총정리해 올해 9월에 논문 약 8편을 발표하고, 그중



안 의부로 공개된 적 없었던 미공개 유물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밝힐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장성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

장성군이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마을 주민을 동네작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귀농귀촌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업이며 마을 이야기부터 농촌 생활, 영농 현장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귀농과 농업 전반에 관한 각종 지원정책, 성공 사례 등 귀농귀촌 준비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도 제공한다.

작가들의 콘텐츠는 사진과 글, 동영상, 카드뉴스로 제작돼 장성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재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